

Press Release



전 시 명	Static Flow
참여작가	이혜민
전시일정	2022. 08. 18(Thur) - 09. 17(Sat)
기자간담회	2022. 08. 19(FRI) 11AM
전시장소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71길 14 2F 갤러리 플래닛 www.galleryplanet.co.kr
전시문의	info@galleryplanet.co.kr T. 02 540 4853

갤러리 플래닛은 오는 8월 18일부터 9월 19일까지 이혜민 작가의 개인전 <Static Flow>를 개최한다. 이혜민 작가는 알록달록한 천 또는 브론즈, 폴리코트 같은 전통적인 조각 재료를 사용한 베게나 쿠션 형태의 작품을 통해, 단순한 재현 또는 현대미술에서 자주 등장하는 레디메이드의 차원을 넘어서는 조각의 새로운 형태를 제시해왔다. 일상적 사물의 유사성과 레디메이드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는 이러한 조각들은 여러 재료와 크기, 집적의 방법에 따라 다양한 지각과 감각의 발생을 가져왔다. 베개는 머리를 받쳐주는 도구이자 휴식과 잠자리, 꿈과 욕망, 질병과 죽음, 휴식과 타인과의 접촉 등 지극히 내밀하고 사적이며 자전적인 서사나 에피소드를 풍성하게 간직하면서 보는 이들에게 다양한 상상력을 부단히 자극한다. 작가는 일상적이고 소소한 것들에서 개인적인 내러티브를 추출해내는 한편 누구나 알고 있고 소유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다양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소재에 기반해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내고자 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유기적 움직임을 보여주는 비확정적 회화 연작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기존의 오브제 작업과 같은 맥락에서 탄생한 비구상 회화 작업들은 단순한 물감 덩어리의 집적이 아닌, 하나의 생명체처럼 내적 구성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가는 유동적 오브제로 이해할 수 있다. 마치 우리가 저마다 자기 운명의 주인공이 되어 각자의 성좌를 절박하게 만들어나가듯이, 이혜민의 모노톤에 가까운 회화들은 우연과 자연 그리고 보이지 않는 내적 운율이 합쳐지면서 결코 단일하지 않은 풍부한 표정의 표면을 일구어낸다. 이러한 결과물은 전적으로 작가가 화면의 모든 구성을 계획하여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와 대화하듯이 질료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회화 작품들은 비결정적 형태로 남아 작품을 응시하고 경험하는 관람자와 교감하면서 계속해서 변화하며 자신의 최종적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다. 즉 이혜민의 회화 작업들은 열린 체계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매 순간 발생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회화 작업들 외에도 흑백의 조화로움을 보여주는 조각 작품 두 점이 이번 전시에 함께 소개된다. 자투리 천들을 이어붙이고 바느질을 한 이 작품들은 일상품을 한데 모아 구성한 아상블라주에 속하기도 하고 정크아트적인 속성도 지니고 있다. 이것들은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거나 옆으로 이어지면서 증식된다. 단일한 하나의 단위가 연속적이고 연쇄적으로 반복되어 번져나가는데, 시간의 흐름을 선적으로 보여주는 한편 동일 개체의 무한한 반복성, 윤회적인 흐름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이는 형태상으로 맹렬한 기세로 증식하는 생명체의 본성을 은유하기도 하고 모종의 경계를 지우고 무한한 시간을 의도적으로 투여하는 작업의 농도를 가시화하기도 한다. 이 수직의 배열은 동일한 하나의 단위/유닛이 축적되어 고이는 양상인 동시에, 한국의 전통문화에서 무엇인가를 기원할 때의 고임의 모드이기도 하다. 이혜민의 조각들은 하늘에 부단히 육박해가고자 하는 이의 정성이 시각화되고 공간에 구체적으로 물질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혜민의 작품들은 우리에게 친숙한 일상의 소재와 재료에서 출발하지만, 오브제를 대하는 작가의 태도에 기인하여 관람자와의 조우 속에서 의미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이것이 내밀하고 단단하게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만들어온 이혜민의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하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오는 9월 2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키아프에서도 이혜민의 새로운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이혜민 Lee Hyemin (b.1968 -)

- 2001 뉴욕대학교 대학원졸업
- 1992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주요 개인전

- 2022 Static Flow, 갤러리플래닛, 서울
- 2020 기억을 잇다, 영은미술관 20주년 기념전, 영은미술관, 광주
- 2020 Reflections, 갤러리빙, 서울
- 2019 A Thousand Water Drops, 이유진갤러리, 서울
- 2018 The Molding, 갤러리로얄, 서울
- 2017 Breathe, Art Mora, 뉴욕
- 2016 Metamorphosis, 영은미술관, 광주
- 2016 Metamorphosis, 갤러리엠, 서울
- 2015 Fragility, Art Mora, 뉴욕
- 2014 Pillow, 디자인포스트, 서울
- 2014 Pillow Talk, Tenri, 뉴욕
- 2013 Unseen, Unstable, Uncertain, 갤러리엠, 서울
- 2013 Seed, Pizzart, 뉴욕
- 2012 Sew Memories, Coohaus, 뉴욕
- 2006 Diary, 유아트스페이스, 서울
- 2006 Pillow, HSBC Bank 오픈기념전, 서울
- 2004 Layers, 브레인팩토리, 서울
- 2003 Pillow, 갤러리사간, 서울

주요 그룹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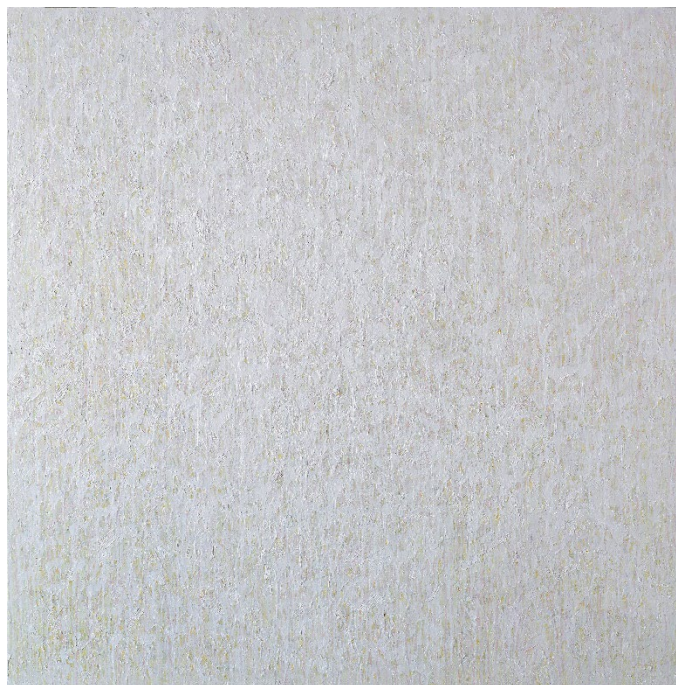
- 2022 The beauty of little thing, 갤러리엠나인, 서울
- 2018 Art Miami, 플로리다
- 2017 Invisible Things, 워싱턴문화원, 워싱턴
- 2015 Alma Mater-1, 가나아트센터, 서울
- 2014 한국현대미술의 궤적, 서울
- 2014 Media Art, Sylvia Ko Gallery, 뉴욕
- 2014 미적동감, AK Gallery, 서울
- 2013 Sprout Out, BBCN Bank, 2인전, 뉴욕
- 2008 인천국제미술제, 인천

- 2007 Hard&Soft, 갤러리우덕, 서울
- 2006 EHS, 세종문화회관, 서울
- 2005 Media Festival, 일주아트센터, 서울
- 2004 암시, 성곡미술관, 서울
- 2004 Cloth, Anex Broadway Galley, 뉴욕
- 2004 시간의 차원, 갤러리사간, 서울
- 2004 Mind Explor, Berliner Project, 베를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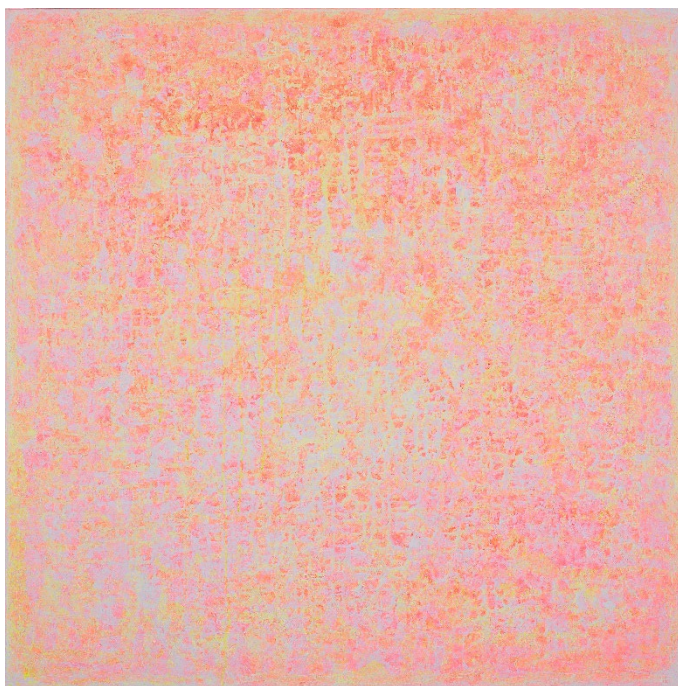
주요 소장처

SBS, 영은미술관, 컴투스, 법무법인 태평양, 두원, 조선일보, 신도리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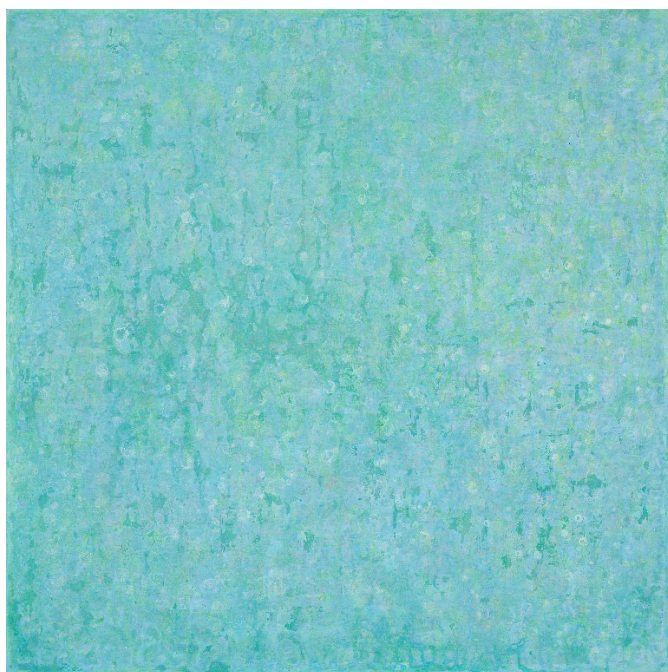
[전시작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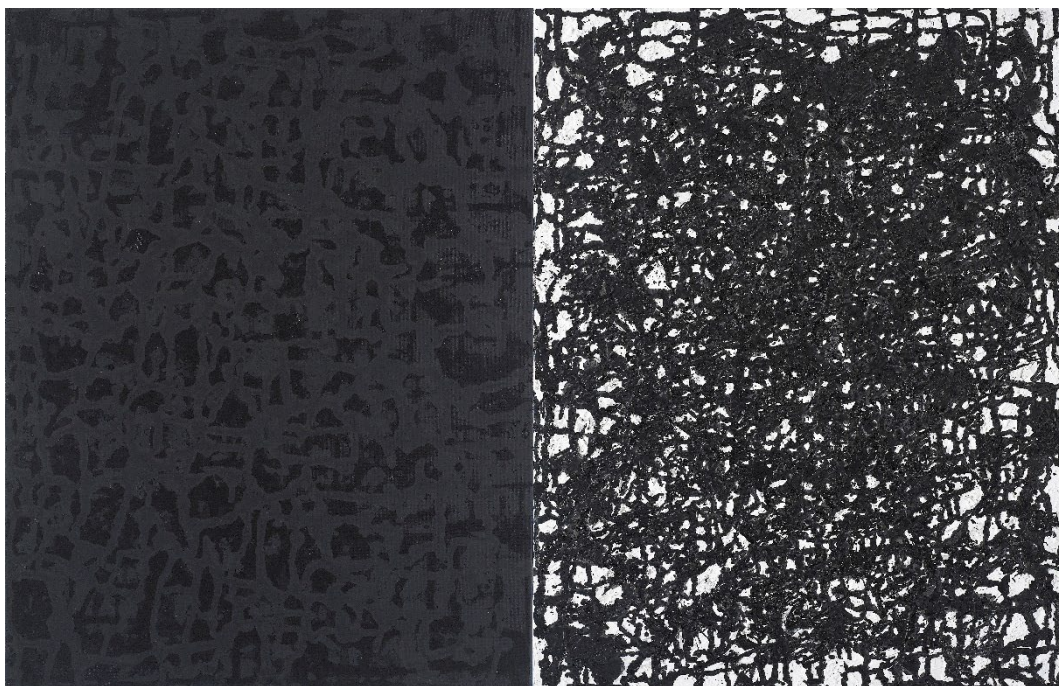
Reflections, 2022, Acrylic and mixed media on canvas, 150x150cm



Reflections, 2022, Acrylic and mixed media on canvas, 120x120cm



Reflections, 2022, Acrylic on canvas, 120x120cm



Reflections, 2022, Acrylic and mixed media on canvas, 53x41cm



Metamorphosis, 2022, Plaster, plaster bandage, chinese ink, 80x75x65cm